

## 발리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에 관한 역사적 조망: 코로나19 이후 발리 문화관광 전망\*

정 정 훈\*\*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발리 관광의 역사적 과정을 조망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이 지역 관광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발리 관광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전망한다. 본고는 우선 발리 지역 관광에 대한 역사를 조망한다. 특히 대중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 테러 등 관광의 위기 사항에서 발리인이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발리에서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현황과 현재 논의되는 관광 관련 담론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관광업 종사자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의 극복 과정에서 전통의례 등이 중요한 사회통합으로 수단으로 활용됨을 밝힌다. 끝으로 팬데믹 기간 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향후 발리 관광은 전통에서 비롯된 생태문화관광이 강조되는 정책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한다.

**주제어:** 코로나19, 팬데믹, 관광위기, 문화관광, 발리

\* 본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0959)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blue3j@gmail.com

## I. 들어가는 말

인도네시아 발리 섬 우붓 지역 한 마을에 거주하는 코망(Komang)은 호텔 시설을 관리하는 기사(*tukang*)이다. 마을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호텔이기에 그는 전기와 상하수도 관리 등 투숙객과 직접 접촉이 없는 거의 모든 일을 해왔다. 성인이 된 후 줄 곳 호텔에서 일을 해왔지만,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이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게 되었다. 코망은 발리 지역 관광이 다시 재개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을의 노동현장과 사원 관리 업무 등의 일을 하면서 힘든 삶을 버티고 있다.

코망씨가 겪은 약 2년간의 실업상태는 2000년대 ‘발리 폭탄 테러’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기존의 발리 관광의 위기 상황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는 여행 금지, 국경봉쇄, 격리 조치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관광, 특히 항공과 호텔 등의 여행분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세계관광기구(UNWTO)는 2021년 국제관광객은 2020년에 비해 약 40%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약 80%가 감소한 수치이다. 더욱이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여행객은 2019년에 비해 95%가 감소하였음을 밝히고 있다(UNWTO 2021).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는 2021년 10월 19일 기준으로 4,236,287명의 감염자와 143,04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WHO 홈페이지). 발리 지역은 2021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2.6%인 113,578명의 감염자와 4,0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Bali.com). 특히 코로나19의 초기 확산과 2021년 여름 이후 델타변이로 인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의 급증으로 발리 지역에는 2020년

에 ‘대규모사회적제한조치(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이하 PSBB)’, 2021년에는 ‘사회활동제한조치(Pemberlakuan Pembatasan Kegiatan Masyarakat: 이하 PPKM)가 연이어 시행되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International Visa-Free Tourism)’의 정지는 관광이 주요한 산업 중 하나인 발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다. 정부의 PSBB와 PPKM의 시행과 기한 연장 그리고 무비자 입국의 금지 등으로 발리 지역의 관광 재개를 통한 경제 회복 기대는 요원하게 되었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여행 방역 수칙’에 따라 격리기간의 단축, 국제항공편 승객 수 제한 종료,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완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발리와 리아우제도 공항을 통한 관광여행 목적의 입국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하여 발리 지역에 대한 국제관광의 재개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발리 관광의 위기는 발리 지역 혹은 아시아 일부 국가에 한정된 국지적 상황이 아닌 전 지구적 팬데믹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중단시킨 전례가 없고, 감염병이라는 단일한 요인이 경제, 정치,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직간접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는 이전의 위기와 상이하다(윤홍식 2020: 114).

물론 발리 지역으로 한정하면 이러한 관광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출현하였다. 가깝게는 2015년 메르스, 2009년 신종플루, 2003년 사스 등 5-6년 주기로 감염병이 확산됨으로써 일정 기간 관광이 중단되었다. 또한 발리 지역은 감염병이 아닌 정치·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관광의 위기 역시 겪었다. 멀게는 20세기 초 양차 세계대전 발발,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시기, 1960년대 중반 대량학살, 1970년대 대중관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2000년대 초반 2차례 발리 폭탄

테러는 여러 측면에서 발리 관광의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국내외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로 발리 관광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발리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하지만 서두에서 제시된 코망씨는 발리 관광이 재개되면 호텔에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이전의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다. 많은 학자들과 언론은 코로나19가 개인, 사회, 국가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전망(Kissinger 2020)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사회로 급격한 전환(Chung 2020)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공존한다.

가장 많은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 분야 역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예측하는데, 지속가능한 관광의 수요(Nunes & Cooke 2021), 민·관의 통합과 협력(McCartney 2020),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 체계 구축(Sharma & Thomas & Paul 2021)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앞서 제시된 과제는 관광분야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방향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한 진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상기한다.

앞서 제시된 것처럼 코로나19는 개인, 단체, 지역은 물론 전 지구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다른 어떤 산업보다 노동 중심성과 의존율이 높은 관광 분야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무급휴직과 실업 등 직업적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물론 백신접종의 상승, 감염자 수의 감소,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표준(New Normal, 이하 뉴노멀)을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는 대체적으로 광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로 한정된다. 소지역과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뉴노멀 시대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발리 섬과 관광분야를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발리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과 실태 그리고 전망에 관해 논의한다. 특히 발리 관광산업이 위기를 경험했던 역사적 과정을 조망함으로써, 향후 발리 관광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발리 관광시장의 경향성(트렌드) 변화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한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인류학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대상자 인터뷰와 뉴스 및 정책자료 활용을 통한 문헌연구이다. 저자가 오랜 기간 현지 조사를 수행한 발리 현지마을(Banjar: 이하 반자르)인 뉴꾸닝 반자르(Banjar Nyuh-Kuning: 이하 뉴꾸닝 마을)의 주민과 인터뷰를 실시했다(정정훈 2017). 하지만 현재 발리에서 직접적인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기에, 저자는 메신저 앱인 왓츠앱(Whats App)과 라인(Line)을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II. ‘관광 발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1. 대중관광과 문화관광의 사이에서

20세기 초 네덜란드 국회의원이었던 반 콜(Heer H. Van Kol)에 의해 시작된 발리 관광은 한 때 약 400만 명이 넘는 국제관광객이 방문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관광객이라고 불리는 집단은 이 지역에서 만나기 어렵게 되었다. 국제관광은 무엇보다 대중관광(mass tourism)으로 규정된다. 대중숙박시설, 대형항공기, 대규모의 관광객, 규격화된 여행상품이 기업에 의해 점점 더 제도화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제도화된 대량관광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이 되었다.

‘관광 발리’의 시작은 1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서구인의 발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관광 발리’는 식민당국과 관광회사들의 노력이라는 대외적인 요인과 발리 문화예술 관련 책과 사진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발리의 이미지가 홍보되고 만들어졌다(Pitana 2000, 9; 정정훈 2018a, 173 재인용).

‘발리 르네상스’라고 불린 1930년대의 황금기를 지나 유럽 지역에서 발발한 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인도네시아 점령으로 발리 관광은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전쟁 이후 승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발리를 비롯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국제관광이 다시 시작되었다. 서구인들은 1930년대 발리를 상징했던 “천국”의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1960년대 전후 발리 섬은 서구인에게 남국의 평화로운 휴양지를 상징하는 지역이 되었다. 비슷한 시기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했던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서구인에게 인식된 발리 섬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실질적인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동안 소수의 부유한 관광객에 의해 이루어지던 발리 섬 관광을 대중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공항 등 관광인프라 구축이 우선 시도되었다. 대규모 제트관광이 본격화된 시대적 상황에 맞게 기존의 투반 공항(Tuban Airport)을 점보 여행기인 더글라스 디씨-8(Douglas DC-8)과 보잉 707(Boeing 707)이 이착륙 할 수 있는 공항으로 변모시켰다. 또한 소규모 가족호텔과 민박 중심의 숙박시설의 한계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관광지의 확장을 위해 누사두아(Nusa Dua) 지역 개발이 시작되었다.

누사두아 지역에 리조트 단지 개발은 토지 수용의 이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당시 국제관광객이 원하는 해변관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관광지로 변화를 택했던 발리 지역은 1960년대 이전 약 30,000명이 방문했지만, 1968년에 들어서는 매년 51,000명이 방문하는 국제 관광지로 변모하였다. 이후 1973년에는

270,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평균 40%의 성장세를 보였다 (Picard 1996: 50).

관광객의 증가는 관광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관광 관련 종사자 수가 증가했고, 관련 수입 역시 급격하게 늘어났다. 발리 관광의 양적 성장은 당시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발리 관광이 외화 수입의 중요한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수하르토 정부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주요한 사회적 담론은 ‘발전(*pembangunan*)’으로 요약된다. 당시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제3세계 국가의 발전 담론은 다른 어떤 사상보다 우선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적 가치였다. 특히 수하르토는 1980년 독립 기념일 연설에서 ‘발전’을 진보와 번영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하였고 (Parker 2004: 121), 이는 정권의 유지와 분리 독립 운동의 정당성 저하 등 사회갈등을 무마시키기 위한 통치전략으로 활용되었다.

발리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별개로 대중관광이 발리 사회에 주는 부정적 측면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특히 발리 문화의 정체성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예술 작품의 ‘진정성(authentic)’에 대한 논란은 대중관광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대중관광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추진된 1970년대 이후, 발리 주정부를 비롯한 관련 학계는 이에 대해 여러 의구심을 표출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대중관광이 가져온 폐해, 예를 들어 물 부족, 환경오염, 범죄, 전통문화의 파괴 등의 해결책 중 하나로 ‘문화관광(*pariwisata budaya*)’이 제시되었다.

발리 주정부는 관광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master plan*)을 마련하면서, 문화관광을 발리 섬 관광 발전의 주요한 개념이자 방향성으로 상정하였다. 이는 관광을 통한 경제 발전의 동력을 발리 전통에서 기인한 다양한 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 유입이 필연적으로 “문화적 오염

(cultural pollution)”을 동반하기에, 문화관광을 발리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Picard 1995: 48).

결국 대중관광에 의한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을 ‘관광의 도전 (*tatangan pariwisata*)’으로 간주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문화관광에 대한 강조이다. 즉 호스트 사회의 관광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 비용의 최소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연결된다. 발리 사회의 문화관광에 대한 강조는 이에 대한 개념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현재까지 문화를 통한 발리의 관광 발전 방안은 꽤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행위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가 발리 문화관광의 주요한 핵심 분야로 손꼽히고 (Yamashita 2003: 85), 이러한 문화관광 자원은 발리 섬이 다른 유사한 휴양지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주목되는 점은 문화를 활용한 관광 진흥 방식이 시대별 관광 유행에 맞춰 변화한다는 점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이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의 삶을 증진시킨다는 담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담론에 맞춰 발리 주정부 역시 ‘마을 관광’ 등을 통해 창출된 수입이 지역주민의 삶을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정책을 펼쳐나갔다(Yamashita 2003: 108-109).

결국 시대별로 변화한 발리 섬 관광 진흥방식이 관광의 위기 순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의해 발생한 관광의 위기의 순간, 예를 들어 1970년대 대중관광의 확산, 2002년 발리 폭탄테러(2002 Bali bombings)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사스(SARS), 신종플루(*new influenza*), 메르스(MERS),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그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은 표면적으로 관광매력도를 약화시켜 관광객의 감소와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피해로 나타



났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은 문화관광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등 발리인의 문화적 본질과 그것의 활용에 대한 여러 의문을 낳기도 하였다.

## 2. '관광 발리'의 위기의 순간

20세기 이후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 양차 세계대전, 인도네시아 혁명기 등 일련의 세계사적 사건 동안 발리 관광은 다양한 변곡점을 겪었다. 그럼에도 발리는 1950년 이후 “되돌아온 파라다이스(returning to the paradise)”로 요약될 만큼 세계적인 관광지로 다시 발돋움 하였다. 이는 로저스(Richard Rodgers)와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가 연출한 뮤지컬인 ‘남태평양(In South Pacific)’의 주제곡 중 하나인 ‘발리 하이(Bali Ha'i)’의 명성과 성공과 연결된다. 홀(Juanita Hall)은 남태평양에서 블러디 메리(Bloody Mary)로 분하여 “발리 하이는 당신을 불러요. 밤이나 낮이나. ~ 발리 하이는 바다 바람을 타고 속삭여요.” 노래하면서 발리 섬을 세계인에게 다시 각인시켰다.

한편으로 국내적으로 발리 관광은 1930년대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힘썼다. 특히 수카르노 정부의 국가 만들기과 수하르토 정부의 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발리 섬에 낙원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 관광 에이전시, 히피(romantic hippies), 영화제작자, 여행 작가 등은 각자의 방식대로 낙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Vickers 1989, 176). 국가주도의 관광정책으로 인한 공항, 도로, 호텔 등 인프라 구축과 낭만적인 고유의 이미지 형성, 국제관광의 성장은 발리 섬이 1960년대 이후 대중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한다.

하지만 대중관광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관광의 부정적인 측면과

연결된다. 발리 관광의 성장, 즉 국제관광의 성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다층적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호주의 청년 집단에게 발리 섬은 저렴한 가격에 일탈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이들 집단의 출현으로 당시 상대적으로 비싼 숙소가 있던 사누르 지역이 아닌 꾸따 지역이 대중관광의 주요 중심지로 변모하게 된다.

로스맨(losemen)으로 불렸던 펜션 형태의 숙박 시설에서 이들은 주로 머물렀고, 낮 시간에는 서핑과 해수욕을 밤 시간에는 음주와 가무를 즐겼다. 특히 1970년대 히피의 중심지인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청년 문화가 발리로 여행 온 호주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서핑은 이들 집단에게 청년 집단을 대표하는 일종의 상징이 되었고, 클럽에서 행해지는 음주, 가무 그리고 ‘환각 버섯(magic mushroom)’의 흡입 등은 금지된 욕망을 해소하는 또 다른 놀이문화가 되었다.

과거 일부 부유층 집단의 관광지였던 발리 섬은 국제관광화를 통한 대중관광지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대중관광이 시작된 이후 ‘관광 발리’는 첫 번째 위기의 순간을 겪게 된다. 관광지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꾸따 지역 주민은 코코넛, 땅콩, 카사바 등 견지농법을 주로 하는 농민들이었다. 비옥한 농토가 있던 중산간 지역이 아니었기에 생산성이 낮아 1968년의 경우 연 소득이 40~80 달러에 머물렀다(Hussey 1989: 314). 관광의 중심지가 사누르에서 꾸따로 이동함에 따라 이 지역 관광객은 급증하였다. 꾸따 지역은 1972년까지 매년 6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지만, 방문객 수는 두 배씩 성장하여 1974년에는 18,000여 명에 달하였다(Hussey 1989: 316).

꾸따 지역이 관광지로 성장함에 따라 이 지역은 여러 가지 환경적·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우선적으로 대두된 것은 해양관광 중심지로 성장한 이 지역의 특성상 해안 파괴가 필연적으로 나타났다. 해안을 향해 숙박시설과 레스토랑 등이 지어짐으로써 해안사구가 파괴되어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산호초를 비롯한

해상생물의 감소로 연안 생태계가 붕괴되었다. 특히 발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해양쓰레기이다. 관광객에 의해 비닐 봉지와 깨진 술병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가 해안에 버려짐으로써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환경 변화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이다. 발리인은 발리 힌두교를 믿는 친족 중심의 마을인 반자르 단위로 공동체를 구성한다. 또한 반자르 공동체의 규율은 매우 엄격하여 범죄 행위 등 일탈 행위는 구성원으로서 제명 등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졌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도둑질, 성매매, 마약 등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발리인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로 다가왔다.

물론 관광의 발전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변화의 악순환은 대부분의 관광지가 비슷하게 겪고 있는 부작용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성장하고 있는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필리핀 정부가 보라카이 섬을 2019년 4월부터 반년 간 섬을 폐쇄한 것은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극단적인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스페인의 유명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는 최근 몇 년간 관광산업이 악화되고 있는데,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증가에서 꼽고 있다(Hedgecoe 2019). 결국 관광의 성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도리어 관광발전의 저해요인임을 일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광의 위기 상황에서 발리 주정부는 이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문화관광’ 정책이었다. 앞서 논의된 것처럼 문화관광은 1971년 발리 주정부의 관광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문화관광을 대중관광이 야기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여긴 것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호주 출신 젊은 층의 히피문화에 대한 발리인의 저항과도 연결된다. 즉 시기적으로 과거 시대, 계급적으로 부유층, 세대별로는 장년층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히피문화가

발리 사회에서 또 다른 저항의 대상으로 부상한 것이다.

발리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여정에서 1980년대는 새로운 관광정책이 제시되는 시대였다. 보위(David Bowie), 레이건(Ronald Reagan), 재거(Mick Jagger) 등 1980년대의 정치·사회적으로 영향

력 있는 인물들을 활용하였다.

이들의 발리 방문을 TV 광고의 소재로 구성한 것이다. 광고에서 ‘부유하고 유명인이 보고 있는 발리(Bali as the rich and famous see it)’로 이미지화 하면서 대중관광의 대안으로 ‘엘리트 관광(elite tourism)’을 내세웠다(Vickers 1989: 192).

엘리트 관광은 현재까지도 발리를 홍보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비근한 예로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게이츠(Bill Gates), 팝가수인 레전드(John Legend)의 휴가차 발리 방문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주목되는 점은 레이건 대통령 등이 발리에 머물렀던 기간 발리의 전통 예술과 공예품을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다(Vickers 1989, 192).



<그림 1> 발리 전통공예품 앞에서 바틱을 입고 연설하는 레이건 대통령(출처: Reagan Library)



<그림 2> 행사장에서 레공을 추는 무희들(출처: Reagan Library)

때로는 상대국 대통령에게 전통의상인 바틱(batik)을 권유하여 대중에게 인도네시아의 전통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연회 시간에 전통 춤인 레공(legong) 등을 선보임으로써 전통문화가 발리 관광의 주요한 관광자원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정부가 이러한 전략을 택한 것은 발리 섬이 문화관광의 대상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20세기 초반부터 서구인에게 발리 섬은 해안과 열대 우림이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한편으로는 가슴을 드러낸 발리 여성의 이미지가 신비로운 풍경과 함께 아시아 여성에 대한 섹슈얼한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대중관광이 가져온 여러 폐해, 즉 관광의 위기 상황에서 환경오염, 전통문화의 파괴, 성적인 문제 등은 관광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였다. 발리 주정부는 전통공예, 전통춤, 회화 등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문화관광의 강조를 통해 대중관광이 가져온 여러 폐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국지적 차원에서 21세기 들어 ‘관광 발리’의 가장 큰 위기 순간은 두 차례 있었던 ‘발리 폭탄 테러(Bali Bombings)’였다. 수하르토 대통령의 하야, 와히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21세기 전후 인도네시아 정치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또한 아제와 말루쿠 지역의 종족과 종교 분쟁 그리고 전기세와 기름 값 등 물가의 상승 역시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9·11 테러 이후 극단 이슬람 세력들은 일종의 국제적 협력을 이어갔다. 미국은 초국적인 테러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세력의 주요한 거점 중 한 곳으로 동남아시아를 지목했다. 더욱이 파키스탄의 이슬람 종교학교(madrasah)에서 오랜 기간 수학한 인도네시아 출신 학생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당시 탈레반으로부터 극단주의 교육을 받고 있었기에 서구 국가들은 이들의 테러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다(Wilson 2001). 실제로 9·11테러 전후 자바와 수마트라의 고

속도로 요금소, 대형쇼핑몰, 주지사 사무실, 교회에 여러 차례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테러가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yah)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이들의 극단적인 행위가 계속될 것임을 인도네시아 당국에 알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국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주변국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2002년 10월 12일 발리 섬에 비극적인 폭탄테러가 발생하였다. 테러범들은 나이트클럽 ‘패디스 바(Paddy’s Bar)’에서 폭탄을 터뜨린 뒤, 맞은편 ‘사리 클럽(Sari Club)’ 앞에서 약 1톤의 사제폭발물이 실린 차량을 잇달아 폭발시켰다.

폭탄테러로 한국인 2명이 포함된 총 20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88명이 호주인 이었고, 인도네시아인 38명, 영국인 27명, 미국인 7명 등으로 여러 국적의 사상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2002년 발리 폭탄테러 이후 연이어 2003년 8월과 2004년 9월에 자카르타 테러가 발생했고, 2005년 10월 1일 발리 짐바란과 꾸따에 3건의 자살폭탄테러로 인해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Frederick & Worden 2011: 329).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발리폭탄테러로 인해 발리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관광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사스, 이라크 전쟁, 조류 독감 등 관광 시장의 침체 요인이 된 여러 악재로 인해 전 세계 관광 시장 역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폭탄 테러 이후 발리 섬의 대부분 호텔과 여행사에 취소 요청이 쇄도하였고, 발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급감하였다. 폭탄테러가 있었던 2003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도에 비해 22.76% 감소하였다.

<표 1> 발리를 방문한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 수(출처: BPS Bali)

(단위: 명,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356,774	1,285,842	993,185	1,472,190	1,388,984	1,262,537
-3.97	-5.23	-22.76	48.23	-5.65	-9.10

2002년과 2005년에 발생한 두 차례 폭탄테러는 발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고, 한때 실업률이 4%에 머물렀던 발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Lewis & Lewis 2009: 205). 발리주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지속했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서구 관광객을 대체할 동아시아 국가의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였다.

결국 폭탄테러 이후 발리 관광객이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출신의 관광객이 급증한 것과 관계된다. 아시아 국가 출신의 관광객 급증은 관광 당국과 여행사가 저렴한 패키지 관광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근거리 위치, 단체 관광, 저렴한 가격 등은 발리 관광의 주요 홍보 지점이었고, 관광객의 급증으로 안전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효과도 일어났다.

발리 폭탄테러 이후 이의 극복을 위한 발리인의 다양한 노력 역시 엿보인다. 관광당국은 “조화로운 발리-평화로운 발리-천상의 발리(Bali Harmony-Bali Peace-Bali Paradise)” 캠페인을 통해 1980년대와 1990년대 관광객이 급증했던 지점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였다(Lewis & Lewis 2009: 207). 또한 이러한 캠페인은 폭탄테러로 인해 발생한 폭력과 두려움의 정서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안전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부여하였다.

관광객의 회복으로 발리인을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인 “웃음”을 찾을 수 있었지만, 폭탄테러로 인해 발리인이 겪은 트라우마를 완전

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발리인은 이의 극복을 위해 힌두교 의례 등을 지속적으로 연행하였다. 의례의 연행이 발리인의 트라우마와 관광의 회복에 일정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폭탄테러의 원인 역시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발리 사회에서 테러의 여러 원인 중 하나를 발리 힌두교가 추구하는 가치인 “조화”에 대한 불균형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 힌두 문화와 종교의 가치관을 재복원해야 함을 사회단체, 언론, 주민들은 주창하였고, 이의 복원이 깨워진 균형, 즉 폭탄테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발리 종족의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지는 개념인 ‘꼬발리안(Kebalian)’과 전통적인 발리 힌두 종교에 의해 전통적인 가치관의 복원을 주창하는 ‘아젝 발리(Ajeg Bali)’ 등의 담론이 제시되었다(Picard 2009, 정정훈 2018b).

결국 폭탄테러 이후 발리의 관광 재부흥과 발리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리의 전통문화는 재차 강조되었다. 비록 관광의 재부흥을 위해 문화관광 보다는 대중관광에 가까운 저렴한 패키지 여행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았지만, 이들 역시 발리 섬이 가진 기존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기에 기꺼이 발리 관광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단적인 예로 2004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인 ‘발리에서 생긴 일’은 비극적 사랑이라는 주제와 달리 극 초반과 결말에서 비쳐진 발리의 문화적 배경이 대중의 관심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또한 발리인 역시 관광의 위기 상황 극복과 그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전통문화를 관광의 도구로 활용한다. 폭탄 테러 이후 희생자와 테러 현장에 대한 대규모 정화의례가 펼쳐졌고, 테러 현장 인근에 희생자를 위해 세워진 추모기념비 제작 과정 등은 발리 전통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발리인의 정화의례와 추모기념비는 희생된 자들을 위한 일종의 추모 의례이지만, 한편으로는 발리 전통의 의미가



현대 관광 분야에서 또 다른 전통의 상품화와 연결된다는 점을 상기 시킨다(Lewis & Lewis & Putra 2013: 28).

### Ⅲ. 코로나19로 인한 발리 관광시장의 변화

#### 1. 코로나19와 발리 관광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감염자는 2020년 3월 2일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카르타 시민인 64세의 여성과 31세의 딸이 자카르타에 온 일본계 말레이시아인과 접촉 후 감염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첫 감염자 발생 이후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지역에서 최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다. 코로나보드(CoronaBoard)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2021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감염자 4,250,855명, 사망자 143,659명, 완치자 4,0987,178명, 치명률은 3.4%에 달했다(CoronaBoard).

발리 섬의 첫 코로나19 감염자는 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여행 차 발리 섬을 방문한 영국 출신의 53세 여성이 2020년 3월 11일 발리의 한 병원에서 사망함으로써 발리 지역의 첫 감염자이자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이후 관광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리의 코로나19 확산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발리 주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2021년 11월 14일 기준으로 114,05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4,038명이 사망하였다(발리주정부홈페이지).

특히 발리 지역은 2021년 1월 6일 자바 지역과 함께 ‘소규모 지역

단위 사회활동제한조치(*Pemberlakuan Pembatasan Kegiatan Masyarakat Mikro*: 이하 PPKM Mikro)’ 지역으로 포함되었다. PPKM Mikro는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지시로 발령되었고, 마을 단위(*Desa/Kelurahan*)로 엄격한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PPKM 시행지역의 제한조치는 다음과 같다.

<표 2> PPKM Mikro 시행지역의 제한조치(출처: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①	전체 근무인력의 50%까지 재택근무 실시
②	해당 지역 학교 비대면/온라인 수업 실시
③	식당/카페 수용인원은 50%, 쇼핑몰 운영시간은 21시까지
④	종교시설내 종교활동은 허용되나 수용인원은 50%로 제한
⑤	해당 마을에서 3인 이상 집합 금지되고 20시 이후 출입 금지

하지만 자바와 발리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더 높은 수준의 사회활동제한 조치인 ‘긴급 사회활동제한 조치(*Pemberlakuan Pembatasan Kegiatan Masyarakat Darurat*: 이하 PPKM Darurat)’가 시행되었다. PPKM Darurat의 대상 지역은 자바와 발리 섬의 7개 주인 자카르타, 반톤, 서부자바, 중부자바, 동부자바, 족자카르타, 발리이다. 앞선 조치인 PPKM Mikro와 비교하여 재택근무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고, 식당은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관광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국내여행 조건이 강화된 지점이다. 장거리 여행자는 반드시 백신접종증명서(*kartu vaksin*)를 구비해야 하며, 항공편 이용 여행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결국 PPKM Darurat의 시행은 내국인의 발리 방문을 엄격히 제한한 조치였고, 나아가 발리에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 여행객의 출국을 앞당기게 하였다.

여행과 관련하여 일련의 조치는 국경 폐쇄 수준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가 초기 유행하던 2020년 3월 초 이후로 인천-자카르타, 인천-발리를 직항으로 연결하는 항공편이 연이어 취소되었다. 특히 3월 5일 시행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관광 중단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더욱이 3월 20일부터 시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단기방문 무비자, 도착비자, 외교/관용여권 무비자 정책이 1개월간 중단됨으로써 인도네시아로의 여행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발리에 입국하는 관광객 수는 2020년 3월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팬데믹 초기 발리 관광의 특이점 중 하나인 ‘장기거주 외국인’(정정훈 2018a)으로 인하여 관광산업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더욱이 2020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상황을 요약적으로 정리한 ‘끝없는 1차 유행(endless first wave)’(Allard & Kate 2020, 김형준 2021; 176 재인용)처럼 장기거주 외국인은 비자를 연장함으로써 일정기간 발리에서 머물 수 있었다. 당시 발리에 머물렀던 관광객에게 발리 섬은 마치 20세기 초 일부 서구인에게 허락된 ‘낙원’의 이미지가 재생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의 마스크 착용거부 등 일탈적 행위, 일련의 사회활동제한 조치, 비자연장 금지가 동반되면서 장기거주 외국인 역시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비자발급 정지, 국제선 항공기 운항정지, PSBB와 PPKM 조치 등으로 인한 관광지 폐쇄, 호텔 등 여행업계의 폐업과 휴업으로 발리 관광은 2020년 4월 이후 사실상 멈추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인해 닫혔던 국경이 점차 개방되고 있다. 감염자 수의 감소, 예방백신 접종자의 증가, 경제침체 극복의 필요성이 각국마다 제기되었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 회복을 위해 ‘여행안전권역협정(travel bubble)’ 등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정책

의 도입으로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유여행이 일정부분 가능하게 되었고, 때로는 일정 금액의 여행경비와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 검사) 비용 등이 지원되었다.

발리 섬은 2021년 11월 기준으로 인근의 태국, 호주, 싱가포르와 달리 완전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비록 발리 지역 주민들의 백신접종 비율이 1차 접종의 경우 전체 접종목표를 넘는 100.68%에 달하고 2차 접종 역시 87.31%에 달한다. 또한 2021년 11월 11일 기준으로 발리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최근 1년 내 최저 수치인 4명에 그친다. 그럼에도 여전히 발리 입국을 위해서는 2차 백신접종 완료, PCR 검사 음성결과, 직항항공기 이용, 비자 소지, 격리 호텔 예약증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 여행객의 경우 현재까지(2021년 11월 20일) 발리 직항노선이 재개되지 않아 실질적이고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은 2017년 인도네시아 전체 GDP의 4.1%를 차지하는 536.8조 루피아(약 4억 달러)를 차지한다. 또한 관광산업은 전체 고용률의 10.5%를 차지하는 1,2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또한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12.6%가 증가한 1,580만 명의 국제관광객이 인도네시아에 방문하였고, 이들 관광객은 평균 8.6일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머물렀다(OECD 2020). 특히 발리 지역의 관광업은 산업분야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발리 주 산업분야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emestic Product: 이하 GRDP)에 있어 관광업 분야인 숙박과 음식 및 음료 서비스 활동은 2019년의 경우 23.27%를 차지하였고, 농업, 임업, 어업 분야 활동이 13.45%를 차지한다(BPS Bali).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관광객의 발리 방문이 금지된 2020년 3월 외국인 관광객은 167,461명으로 전년동월비 약 62%가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한 2021년의 경우 전년동월

비 약 99.9%가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5%에 머물렀던 이 지역 실업률은 2020년에 들어서 5.63%로 급증했다. 또한 매년 6%에 달했던 경제성장률 역시 2020년에 들어서 -9.31%로 역성장 하였다.

<표 3> 발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출처: 발리통계청)

(단위: 명,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관광객 수	4,001,835	4,927,937	5,697,739	6,070,473	6,275,210	1,069,473
성장률 (YOY)	6.24	23.14	15.62	6.54	3.37	-82.96

<표 4> 월별 발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출처: 발리통계청)

(단위: 명)

	1월	3월	5월	7월
2019년	455,570	449,569	486,602	604,323
2020년	536,611	167,461	36	8
2021년	10	3	0	0

## 2. 관광 재개를 앞둔 발리 내·외부 환경

코로나19 시기 발리 섬 관광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이 시기 발리 관광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다. 비록 나중에 철회된 언사였지만, 정부의 고위직 중 한명인 해양투자부의 조정관인 루후트(Luhut Pandjaitan)는 발리 관광이 재개 된 이후 백패커(backpacker)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관광이 중단된 시기를 맞아 발리의 이미지를 기존의 ‘낮은 가격’과 ‘일반대중’에서 벗어나 “품격 있는(quality)” 관광지로 변화시키려는 시도 역시 엿보인다(*The Diplomat* 2021/11/19). 발리의 관광청장인

아스타와(I Putu Astawa)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발리 관광이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오래 머무르며, 더 나은 태도를 가진 여행객이 오기를 희망하다는 의사를 내비친다(The Guardian 2021/10/13).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유행이 잠시 소강상태에 머무르자 발리와 유사한 휴양지라고 인식되는 태국과 싱가포르 정부는 검역 등 입국 조건 완화를 통해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는 격리 유지와 비자 발급 절차의 어려움 등 여전히 방역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관광 재개에 있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발리 관광의 방향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팬데믹 이전 조코위 정부가 2016년 관광분야에서 계획했던 “10개의 새로운 발리 프로젝트(10 new bali project)”가 주목된다. 코로나19 이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보였고, 2020년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00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조코위 정부는 발리와 같은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을 제시했다. 와카토비(Wakatobi), 토바 호수(Lake Toba), 보로부드르 사원(Borobudur Temple), 브로모 화산(Mount Bromo) 등 10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결국 2,000만 관광객 유치, 즉 관광의 양적 성장을 위해 발리 이외의 새로운 관광 거점을 마련하는 방식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발리 지역은 “품격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발리 주지사인 코스터(Wayan Koster)는 현지 신문(detiknews)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관광의 성장이 외국인 투자자 등 일부 사람의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갈 뿐 주민에게 돌아온 이익은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발리 전체 경제의 50%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의 악화로 주민의 피해는 더욱 극심해 졌음을 주장한다. 결국 관광의 재개 이후 경제적 민주주의의 달성을 위해 문

화, 농업, 어업 분야의 성장에 좀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관광의 성장 과정에서 지역의 잠재적인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지에 대한 논의를 강조한다(Sui Suadnyana 2021).

관광에 있어 문화의 강조는 정부의 실무부처인 관광창조경제부의 정책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산디아고 우노(Santiago Uno)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2024년까지 “인증된 지속 가능한 관광 마을(certified sustainable tourism villages)”을 224개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 사회 기반 관광(community-based tourism)”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Winterflood 2021).

정부와 발리 지방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그리고 이후의 관광의 방향성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 기반 관광상품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현지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활용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내야 한다. 결국 이상의 관광정책의 방향성은 “품격 있는 여행자(quality tourists)”가 방문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이 동반된 발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귀결된다.

물론 발리 섬 관광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움직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논의의 연장선이다. 앞선 논의처럼 발리 관광의 위기 상황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이의 활용은 주목된다. 즉 다양한 연유로 발생한 발리의 위기를 발리인은 전통에서 비롯된 관념과 담론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다. 이중 대표적인 관념이 행복의 세 가지 요인이라고 해석되는 ‘트리 히타 카라나(Tri Hita Karana: 이하 THK)’이다. 인간과 신의 관계(*parhyangan*), 인간과 인간의 관계(*pawongan*), 인간과 자연의 관계(*palemahan*)의 원활한 조화가 결국 인간을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이다(Winterflood 2021).

THK를 통한 삶의 실천은 앞서 서두에서 제기된 뉴꾸닝 마을 주민인 코망씨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코망씨는 호텔

일을 그만 두었고 현재까지 실업 상태이다. 마을의 종교경찰로 해석되는 빠잘랑(pecalang) 활동, 마을의 건설노동자 활동, 마을 청소 등을 통해 얻은 비정기적 수입을 통해 삶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뉴꾸닝 마을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관광업 분야에 종사하기에, 관광산업의 중단으로 주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졌다.

그럼에도 마을 주민들은 일종의 사원 창립 기념일인 오달란(odalan), 추수감사절 성격인 갈룽안(galungan) 등 전통의례를 쉽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례의 지속적 실천은 주민들의 종교에서 비롯된 조상숭배와 마을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권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의례를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도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전통의례의 지속적 실천이 마을 주민들이 처한 개인적 위기를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한 측면 역시 엿보인다. 기존 마을 구성원에게 공동체 의무로 부여되던 마을 경비, 청소, 사원 관리 등의 임무는 사실상 경제적 보상이 없는 활동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실업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마을 주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뉴꾸닝 마을주민회는 과거 공동체 유지를 위해 의무로 부과되던 이들의 활동에 마을 기금 등을 활용하여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코망은 호텔 일을 주업으로 하였고, 빠잘랑 활동은 별개의 급여를 받지 않는 자신에게 부여된 공동체의 의무였다. 코로나19 이후 간간히 있는 집짓기와 도로 정비 등 건설현장 일을 통해 약간의 수입이 발생했지만, 이 역시 가족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부족한 금액이었다. 기존의 통폐합 되거나 간략하게 진행된 일부 의례가 코로나19 이후 도리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코망은 빠잘랑 활동과 사원 관리 업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었다. 결국 마을공동



체의 의례를 포함한 전통담론의 실천이 개별 주민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뉴꾸닝 주민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발리-힌두교의 삶의 철학인 THK를 일상에서 실천했지만, 개별 주민들의 경제적 위기와 건강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확대되어 투영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와 지방정부의 건강 프로토콜에 따라 일부 의례가 취소되었지만, 점차 일상을 회복하면서 의례는 더욱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원인이 국외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증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발리 주민들은 인간의 탐욕, 생명존중, 인간의 영적 품격의 결손에서 코로나19의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발리-힌두교의 종교 철학 중 하나인 THK의 실천의 부족, 즉 인간과 신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건강에 대한 위기의 반작용이자 삶의 올바른 실천에 대한 작용 중 하나로 전통의례의 실천과 그것의 확대라는 사회적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코망의 사례처럼 이러한 전통의례의 실천 과정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주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괜찮은 주민들은 마을 기금 대신 자신들의 기부금을 통해 의례 진행 비용을 충당한다. 과거 3-5명이면 충분했던 사원 관리나 마을 청소 등에 더욱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고, 이러한 활동에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 극복에 일정한 도움을 준다. 한편으로 기부금을 납부한 주민들은 전통의례를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종족과 종교 공동체로 구성된 발리의 마을 공동체 붕괴를 막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미래 전망을 위해서 팬데믹 기간 발리 내 ·

외부 사회적 조건과 담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광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주정부의 정책은 발리 전통에 대한 재인식과 이것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발리 주민들 역시 의례를 비롯한 문화적 전통이 위기 상황에서 이의 극복을 위한 주요한 가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발리 섬 관광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발리 전통 문화는 여행객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긴밀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는 생태문화관광(eco-cultural tourism)의 실천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전이될 것이다.

#### IV. 결론: 관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통문화의 활용

조코위 2기 행정부의 여러 정책 중 문화관광 분야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에 1969년생 경제인 출신인 산디아가 우노의 임명이다. 참신한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입각시켜 광업과 농업 분야의 비중이 큰 인도네시아 경제 분야의 패러다임을 창조산업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조코위 행정부의 창조경제 기획 속에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에쓰노 웰니스(ethno wellness)’ 관광산업의 육성(조운미 2021) 역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의 일환으로 보인다.

에쓰노 웰니스란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수많은 종족 사회들에서 각기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다양한 총체적 건강 관행들을 총칭한다. 각 종족이 보유하는 전통지식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측면과 함께 비기술적 특성들까지 활용한다(조운미 2021: 356). 결국 4차 산업 시대, 디지털 시대, 창조경제라는 최첨단 시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각 종족의 전통을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주제로 선택한 것이다.

조코위 2기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무엇보다 과거 발리 관광의 위기 상황에서 전통이 이의 극복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대중관광에 의해 다양한 부정적 요인이 도래하던 1970년대 발리 사회의 문화관광에 대한 강조는 ‘관광의 도전’에 대한 위기 극복 수단이었다. 문화관광에 대한 강조가 다른 대중관광지와 차별화된 여행지로 주목받았고, 다른 한편으로 발리 사회 내부의 결속력과 공동체의 필요와 효용성에 대해 재고찰 하게 하였다.

종교, 사회, 국가 사이의 다양한 갈등이 초래된 2000년대 이슬람 세계와 서구 세계의 대결 구도는 9·11테러와 같은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 이후 인도네시아 내부의 극단 이슬람 세력들은 국제적 협력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2002년 발리 폭탄테러는 ‘낙원의 섬’, ‘신들의 섬’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남극의 휴양지에 큰 상처를 남겼다. 제마 이슬라미아에 의해 벌어진 폭탄테러는 코로나19 이전 발리의 경제와 사회 제 분야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관광객의 감소라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의 극복을 위해 발리 문화에 대한 인식과 재인식의 과정이 있었다. 결국 관광의 위기 상황 극복과 그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전통문화를 관광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팬데믹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발리 섬 관광은 2020년 3월 중순 이후 완전히 중단되었고, 산업 분야에 있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관광업의 중단은 발리 사회에 큰 경제적 위기로 나타났다. 호텔업, 여행업, 운수업 등 관광 관련 산업에 종사한 수많은 발리인의 기약 없는 무급 휴직이 이어졌고 결국 실질 상태에 접어들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2021년 하반기에 들어 여행의 재개를 기대했지만, 2021년 12월 전후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의 확산으로 발리 섬 관광 재개에 대해 정부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발리 지역과 유사한 관광 형태를 보인 태국 등 인근 국가의 여행지가 관광을 재개하기에, 정부 역시 관광을 백신 접종률이 높은 발리 섬을 필두로 외국인 관광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한다. 발리 여행이 다시 시작된 후 주목되는 지점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발리관광이 재개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상황은 우선 관광창조경제부와 발리 주정부의 관광산업에 대한 재인식이다.

과거 대중관광 여행객에 의해 발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이 발생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 여행객의 일탈적인 행위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행위들의 근절을 요구하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주정부는 발리 전통문화에 대한 강조, 지속가능한 관광, 에코투어리즘 등이 실천되는 지역으로 변화를 원하고, 이에 걸 맞는 “품격 있는” 관광객 중심의 여행지로 변화하려고 할 것이다.

발리 섬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주민들은 팬데믹 기간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한 위기를 겪어왔다. 또한 팬데믹 이전 발리 사회는 평등했을까? 모든 사람에게 팬데믹 같은 재난은 평등하게 다가왔을까? 에 대한 질문과 답론이 충돌하였다. 관광의 발전 과정에서 일부 소수의 사람만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경제적 갈등, 사회적 갈등, 종족적 갈등에 대한 여러 질문이 있었고, 마을 공동체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종족적·종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다양한 의례 등이 실천되었고, 이는 발리인의 종족 정체성의 형성과 재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의례 실행 과정에서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 전통의례가 활용되었고, 한편으로 이러한 의례 실천이 반자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

문화란 시대의 흐름과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구성되고 재구성

되어왔다(Kahn 1993). 관광의 중단으로 인한 발리 사회는 크나큰 위기를 겪었고, 이러한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제도와 내부의 동력은 전통문화에 대한 재강조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발리 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이 지역 관광은 과거보다 더욱 문화관광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역 관광, 느린 여행, 자연 존중 등 최근 전세계적인 관광의 추세에 따라 생태문화관광이 더욱 강조되는 정책과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형준. 2021.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정부 정책과 코로나19 관련 담론.” 『코로나19에 맞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별 초기 대응과 초국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주: 전북대 출판문화원. 176-215.
- 윤홍식. 2020.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과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길.” 『비판사회정책』. 68: 113-142.
- 정정훈. 2017. “발리 우붓 지역 관광발달과 전통의 재구성: 뉴꾸닝 주민의 문화적 실천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정훈. 2018a. “생태-문화관광의 현황과 재고찰: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의 수박(subak) 사례.” 『문화정책논총』. 32(1): 167-193.
- 정정훈. 2018b. “‘우리는 발리인이다’: 종족정체성 강화 기제로서 관광발전 담론.” 『한국문화인류학』. 51(1): 97-133.
- 조윤미. 2021.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는 전통의 힘: 인도네시아 정부의 창조경제 기획과 에쓰노 웰니스.” 『2021년 한국문화인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한국문화인류학회.
- Chung, S. W. 2020. Post Corona Virus and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B* 10: 148-152.
- Frederick, W. & Worden. R. 2011. *Indonesia: A Country Study*. Library of Congress. Federal Research Division.
- Hedgecoe, G. 2019. Barcelona Crime Wave Tarnishes Boom in Tourism. *BBC*. August 21, 2019.
- Hussey, A. 1989. Tourism in a Balinese village. *Geographical Review*

79(3): 311-325.

- Kissinger, H. 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Forever Alter the World Order. *Wall Street Journal*, April 3, 2020.
- Lewis, J., & Lewis, B. 2009. *Bali's Silent Crisis: Desire, Tragedy, and Transition*. Lanham: Lexington Books.
- Lewis, J., Lewis, B., & Putra, I. N. D. 2013. The Bali Bombings Monument: Ceremonial cosmopoli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2(1): 21-43.
- McCartney, G. 2021.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Outbreak on Macao. From Tourism Lockdown to Tourism Recovery. *Current Issues in Tourism* 24(19): 2683-2692.
- Nunes, S., & Cooke, P. (2021). New global tourism innovation in a post-coronavirus era. *European Planning Studies* 29(1): 1-19.
- OECD. 2020.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20*, Paris: OECD Publishing.
- Parker, L. 2004. *From Subjects to Citizens: Balinese Villagers in the Indonesian Nation-State*. Oxfordshire: Routledge.
- Picard, M. 1995. Cultural Heritage and Tourist Capital: Cultural Tourism in Bali. *International Tourism: Identity and Change* 48: 44-66.
- Picard, M. 1996. *Bali Cultural Tourism and Touristic Culture*. Singapore: Archipelago Press.
- Picard, M. 2009. From 'Kebalian' to 'Ajeg Bali': Tourism and Balinese Identity in the Aftermath of the Kuta Bombing. *Tourism in Southeast Asia: Challenges and new directions* 99-131.
- Pitana, I Gde. 2000. *Cultural Tourism in Bali: A Critical Appreciation*.

- Denpasar: Research Center for Culture and Tourism University of Udayana.
- Sharma, G. D., Thomas, A., & Paul, J. 2021. Reviving Tourism Industry Post-COVID-19: A Resilience-Based Framework.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37: 1-11.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ndonesia). 2003. *Bali Beyond the Tragedy: Impact and Challenges for Tourism-led Development in Indonesia*. UNDP Indonesia.
- Vickers, A. 1989. *Bali: A Paradise Created*. Berkeley: Periplus Editions.
- Wilson, C. 2001. *Indonesia and Transnational Terrorism*. Department of the Parliamentary Library.
- Yamashita, S. 2003. *Bali and Beyond: Explorations in the Anthropology of Tourism* (Vol. 2). New York: Berghahn Books.

#### 신문과 잡지

- Allard, Tom & Lamb, Kate. "Endless First Wave: How Indonesian Failed to Control Coronavirus." *Reuters*. August 20. 2020.
- Azwar, Amahl S. "Bali is Reopening to Tourists, but Nervous Locals Wonder What the Future Will Bring." *The Guardian*. October 13. 2021.
- Smith, Dave. "Indonesia Is Reopening, But Bali's Tourists Haven't Returned." *The Diplomat*. November 19. 2021.
- Sui Suadnyana. "Koster: Pariwisata Tak Banyak Manfaatnya ke Warga Bali, Dinikmati Pemodal." *detikNews*. October 11. 2021.



Winterflood, Julia. "Indonesia's New Tourism Minister Gets Down to Work." *Travel Weekly Asia*. February 03, 2021.

### 인터넷 자료

발리주정부홈페이지. "Update Penanggulangan Covid-19". <https://infocorona.baliprov.go.id/2021/11/14/update-penanggulangan-covid-19-minggu-14-november-2021> (검색일 2021년 11월 15일)

발리통계청. "Number of Monthly Foreign Visitor to Bali by Month, 1982-2008" <https://bali.bps.go.id/statictable/2018/02/09/21/banyaknya-wisatawan-mancanegara-bulanan-ke-bali-1982-2008.html> (검색일 2021년 11월 3일)

발리통계청. "Number of Domestic Visitor to Bali by Month, 2004-2020" <https://bali.bps.go.id/statictable/2018/02/09/29/kunjungan-wisatawan-domestik-ke-bali-per-bulan-2004-2018.html> (검색일 2021년 11월 3일)

발리통계청. "Number of Foreign Visitor to Indonesia and Bali, 1969-2020" <https://bali.bps.go.id/statictable/2018/02/09/28/banyaknya-wisatawan-mancanegara-ke-bali-dan-indonesia-1969-2020.html> (검색일 2021년 11월 3일)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코로나19 공지". [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3654/list.do](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3654/list.do) (검색일 2021년 11월 15일)

BALI.COM. "COVID-19 Statistics Indonesia." <https://bali.com/news/corona-updates/corona-statistics-indonesia-bali/> (검색일 2021년 10월 20일)

CoronaBoard.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

<https://coronaboard.kr/> (검색일 2021년 11월 15일)

Reagan Library. “President Reagan at State Dinner in Bali,” Indonesia on May 1, 1986. <https://www.youtube.com/watch?v=webvL5nbz-Y> (검색일 2021년 10월 3일)

World Tourism Organization(UNWTO).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and Statistical Annex.” <https://www.e-unwto.org/loi/wtobarometereng> (검색일 2021년 11월 20일)

WHO. “COVID-19, Indonesia Situation.” <https://covid19.who.int/region/searo/country/id> (검색일 2021년 10월 20일)

(2021.11.26. 투고, 2022.01.23. 심사, 2022.02.17. 게재확정)

<Abstract>

## An Analysis on Overcoming the Crisis of Bali Tourism Industry: The Prospect of Bali Cultural Tourism after COVID-19

Jeong Jeong Hun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of Bali tourism.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Balinese society understands and copes with the crisis of tourism. Through a view of the historical process, it provides a perspective on how tourism in Bali will change after COVID-19. First, I discuss how the Balinese responded to the crisis of tourism such as the rapid increase in mass tourism in the 1960s and 1970s and the terrorism in the 2000s.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tourism in Bali after COVID-19 and the current discourse on tourism will be reviewed. In particular, it is revealed through case studies that the practice of traditional village rituals is used as an important means of social integration in the process of job loss of tourism workers. Finally, a renewed awar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and changed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ll be explained in the course of the pandemic. In this process, it is predicted that Bali tourism will change into a policy environment that emphasizes eco-cultural tourism derived from tradition.

**Key Words:** COVID-19, Pandemic, TourismCrisis, Cultural Tourism, Bali

